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 5

어제 2 개월 반만에 한교회 성도님 부처와 재회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이 꿈인지 생인지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꿈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인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설마 이 현대 일본에서 7 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2 만가구 이상이 피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후쿠시마 제 1 원전에서 반경 20 킬로~30 킬로 범위내) 이 상황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진 재해가 일어난 그 주간의 일요일 3 월 6 일에 5 일 후에 대지진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채 저는 예배 중 메시지를 통해 '만약 동북 지방에 이번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것 같은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1~2 년으로는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날 메시지가 녹음된 것을 최근에 듣게된 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아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라며 새삼 놀랐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진 재해 직후에 "순풍 좋고 역경도 또한 좋아요"가 출판된 것도 이상합니다. 3 월 11 일 지진 재해를 만나 돌연 유랑여행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출판된 것은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지진 재해 전의 문장이라서 지진 재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시다만 그래도 타이틀 덕분에 독자들로부터의 많은 호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더구나 서브타이틀인 "想定外こそ想定内 · 상정외야말로 상정내"는 더욱 그러했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이쪽을 표제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거대한 지진 직후에 출판된 책의 타이틀 선정은 무언가에 이끌림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될만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루트에서 검색을 시작하면 몇가지 비슷한 현상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기술한 바 있습니다만 20 년 전 부터 모든 성도와 함께 버스로 여행을 계속하는 아내의 이상한 꿈. 또한 100 년을 내다보고 지은 2008 년 현당한 새교회. 당초에는 '이렇게 훌륭하게 지었는데 어째서 2 년반만에 폐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억울하기도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역시 그 때 건축해 두어서 좋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올해 3 월에 이전에 낡은 건물에서 거대한 지진을 맞았다면 그 낡은 건물로는 도저히 견디어내지 못하고 무너져내려 성도님들이 크게 다쳤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우리들은 전부터 '만약 대지진이 오면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라고 상의해왔습니다. 이번의 대지진을 만나기 전, 5 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뒤에 닥쳐올 지진 재해를 염려하여 비가 새는 것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교회 건설의 뜻을 심으셔서 이번 지진 재해에 대비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퍼즐이 풀리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차례 차례 마음 풀리는 수수께끼 풀기가 시작되고 구석구석까지 유쾌할 정도로 훌륭하게 스토리가 연결되어 가슴마저 후련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가슴에 막혀있던 것들이 평하고 뚫려서 무엇 하나 근심할 일 없는 유쾌한 심경이 되어 보고 싶습니다. 빨리 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여 지금이라도 당장 오너라.

그러나 이렇게 조급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 마음은 지금 타고 있는 신칸센의 탓일까요?.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제 용기있는 발걸음을 조절하여 하나님이 남기신 수많은 지문을 따라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암호는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여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이사야 제 30 장 15 절

5 월 30 일(월) 교토행 신칸센내에서